



4면

도교육청,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대회

#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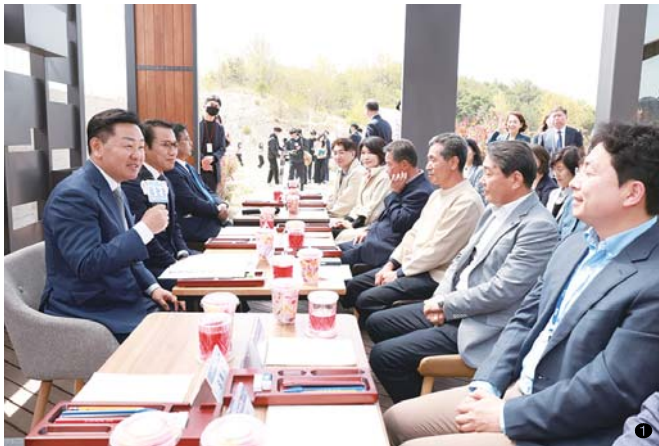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윤 2월 28일) 제32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남원 · 정읍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



●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17일 남원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합파우어트밸리 사업장을 방문해 남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같은 날, 정읍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 SK 넥실리스를 방문해 이재홍 SK 넥실리스 대표이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제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들어선다

전북도 등, 내일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와 새만금 국가산단 1조2000억 규모 투자협약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9일 (주)LG화학·절강화유코발트와 새만금 국가산단 입단지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신학철 (주)LG화학 대표이사, 쉬웨이 절강화유코발트 부총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LG화학과 절강화유코발트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202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내 새만금 산단 6공구(33만8,000㎡)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7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주)LG화학은 1947년 설립한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배터리 전문 회사(LG에너지솔루션) 등 균형 있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이다.

절강화유코발트는 2002년 설립, 광물 채굴에서 전구체 생산까지 배터리 핵심소재 수직 계열화를 이룬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이다.

새만금에 건설하는 ‘이차전지 양극 소재(황산메탈·전구체)’ 제조시설은 (주)LG화학과 절강화유코발트가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LG화학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항만·공항·도로 등 우수한 기반시설, 특히 공동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용수·가스·스팀 등의 유틸리티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높이 평가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새만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LG화학·절강화유코발트를 환영하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산업과 기업발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새만금이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인 (주)LG화학·절강화유코발트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

며, 이번 투자협약을 기반으로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전북 투자 러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글로벌 공급 경쟁력을 갖춘 (주)LG화학·절강화유코발트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주)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기반으로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 최고의 종합 전지 소재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주)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투자유치로, 올 들어 4개월만에 총 9개 기업, 351.73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에 버금가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조만간에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앞으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군산=이재훈 기자

도, 신규 공중보건 의사 의료취약지에 배치

전북도는 신규 공중보건 의사 111명을 도내 시·군 보건소,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고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 의사 111명(의과 53, 치과 17, 한의과 41)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도내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3년간 도민의 건강지킴이로 지역 보건요를 담당한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 의사(111명)는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을 배치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 의료원(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도서 지역(군산부안)에 전문의를 집중 배치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북지역에는 이번 신규 배치된 111명을 포함해 모두 325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한다. 세부적으로 시·군 보건소·보건지소 299명, 도 역학조사관 2명, 군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20명,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4명이다. /김재훈 기자

###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취재기자(군산)	"	"
지역취재기자(완주)	"	"

▲ 접수기간 2023년 4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 전북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건축시설·교통시설 등 7개 분야 1553개소 대상

전북도는 6월 16일까지 61일간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및 노후 위험시설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집중 안전점검은 범국가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도는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식품 등 7개 분야 1553개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람의 점검이 어려운 고층 아파트 상부, 교량 등은 드론을 비롯한 과학기술장비를 이용해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 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해 도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허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각종 사고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내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출렁다리, 케이블카, 짚라인 등 18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마치고, 시군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